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1일 월요일 음 5월 12일 (4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제주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1℃, 낮 최고기온은 27℃ 내외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and 0% chance of rain/snow.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4) and moonrise (15:50).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주의' (caution) for food poisoning and '매우 높음' (very high) for UV index.

Table with 4 columns: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Rows show '보통' (moderate) for PM10 and '나쁨' (poor) for PM2.5.

Table with 3 columns: 주간예보, 구름 많음, 21/28℃, 맑음, 21/25℃.

월드뉴스

평생 면역계 건강, 생후 수개월 안 결정

모유 수유 질환 예방에 좋아

천식, 1형 당뇨병, 크론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미국과 유럽의 아동·청소년에게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등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이런 사례가 적다.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위험은 대체로 유아기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사람들은 대개 유아기에 항생제를 많이 쓰면 천식 위험이 커지고, 모유 수유가 자가면역 질환 예방에 좋다고 알고 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면 왜 자가면역 질환이 될 생기는 걸까?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과학자들이 모유 수유가 이런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열쇠는 장의 미생물 총이 쥐고 있었다.

아기의 장내 균이 모유에 풍부한 HMO(모유 올리고당)를 잘 분해하면



인간과 동물의 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장균.

혈액 및 장의 염증이나 면역 기능이 상이 훨씬 덜 생겼다.

미국의 UC 데이비스(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네브래스카대, 네바다대 등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17일(현지 시각) 저널 '셀'(Cell)에 논문으로 실렸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카롤린스카 의대의 브로디 소아 면역학 교수는 "비피더스균은 HMO를 특별히 잘 분해할 뿐 아니라, 모유를 먹는 아기의 장에서 증식해 면역계 발달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진선희 부국장 겸 교육문화체육부장

이미 7개 공립미술관을 운영 중인 제주는 전국 지자체가 너도나도 뛰어든 '국립 이견회 미술관 유치' 경쟁과 무관한 듯 보였다. 그게 아니었다.

지역의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한다며 대중들이 솔깃해지는 문화공간이나

이토록 뜨거운 미술관, 그때도 그랬더라면

'국제'란 명칭이 달린 시설을 건립하는 목소리는 새삼스럽지 않다. 지자체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해온 각종 문화예술계획서를 통해 익숙하게 봤다.

제주도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중간보고 자료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예외없이 계획안의 끄트머리에 배치된 문화예술 분야 중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의 섬 구축' 항목을 보자. 급하게 준비한 탓인지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 대목도 있었는데, 여기에 국제적 미술관 유치가 제시됐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를 통해 근래 유명 미술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동안 두 기관이 제주 지역 공립미술관에 기울여온 관심도는 그것과 온도차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이견회 회장의 미술품 1488점을 수증하며 명명한 '이견회컬렉션'을 통해 소장품 1만점 시대를 열었다고 홍보했듯이 미술관의 경쟁력 중 하나는 공간 특성화에 맞춰 어떤 작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있다.

소장품 구입 예산은 작년보다 절반 넘게 깎인 2억원이었고, 지난해 10억원이 배정됐던 이견회미술관은 2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견회미술관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얼마 전 나왔지만 이는 해당 미술관 안팎의 숙원이었다. '이견회컬렉션' 중 이견회 작품이 제주 피난 시절 배경으로 추정되는 1950년대 '바닷가의 추억-피난민과 찻눈' 등 104점인데, 이견회미술관이 지역의 역원을 일찍이 반영해 증축이나 신축에 나섰다면 제주형 기증품이 12점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 말이 들리는 이유다.

코로나19 시점을 넘어 우리 예술이 건네는 위로를 체감하고 있다. 미술관 등 곳곳에 자리한 문화공간들은 예술을 제주도민과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다. 시간의 바람에 편승하기보다 이들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진화하는 보이스포싱, 관심으로 예방하자



이지환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며칠 전 지구대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아들이 납치됐으니 당장 돈을 입금해라'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 것이다.

이처럼, 최근 누군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후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는 비대면범죄, 피싱범죄가 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묘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보,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다.

취준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20-30대 피해자들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 등 주변의 세심한 관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보이스포싱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수법이 다양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및 가족을 사칭해 돈이나 상품권 등을 보내달라고 할 시에는 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발신자가 본인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출처의 앱 설치를 하지 않으며,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URL)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정부가관 및 금융기관, 자녀 등을 사칭한 문자 혹은 전화를 받거나 링크(URL)를 받을 시에는 우선 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귀중한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1년 올해의 영어 단어



강승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올해도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영어사전 출판사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Word of the Year)를 발표한다. 이러한 올해의 단어는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미국의 매리 웹스터 사전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올해의 단어로 발표했다. 영국의 콜린스 사전은 여행 및 공공장소의 접근 금지 등 봉쇄를 의미하는 락다운(lockdown)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또 다른 영국의 사전인 옥스퍼드 사전은 예년과 달리 2020년에는 한 단어가 아닌 코로나19(COVID-19), 재택근무(WFH: Working From Home) 등 여러 단어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2021년 연말에는 어떤 단어가 올해의 영어 단어로 뽑힐까. 아니면 어떤 단어가 뽑히면 좋을까.

누군가는 백신(vaccine)이라고 할 것이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연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완료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여행(travel)이라고 할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 1위가 여행이었다고 한다. 연말이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복귀(return)가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부터 잘 지켜나가자.

Large advertisement for '시민장의사' (City People's Doctor) featuring a map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꽃보라화원' (Kkotbora Flower Garden) featuring various plants and contact information.